

‘해외포교’ 중요성은 누구나 공감한다. 하지만 이 길을 자칭해 떠나기란 쉽지 않다. 낯선 나라에서 살아야 한다는 부담감, 재정 마련 등은 해외포교를 ‘고행 길’처럼 인식시키고 만다. 그러나 여기, 독립군 대장과 같은 스님이 있다. **美 캘리포니아 주 LA 오렌지 타운 정혜사 주지 석타스님**. 10년 전부터 부산 금화사에 초등불교학교를 만들어 어린이포교에 매진해온 현목 김광호 법사가 정혜사를 7월 18일부터 한 달간 방문하고 돌아와, 본사에 편지 한 통을 대신 부쳐달라고 부탁했다. 미국 LA 정혜사 주지 석타스님에게 보내는 편지다.

美 정혜사 석타스님께 현목이 올립니다

“국내 포교부터 해야지 해외는 무슨...” 이라는 편협한 생각을 했던 제가 참 스승을 만났습니다”

석타스님!
미국을 떠나 한국에 온 지도 어느덧 보름이 지났습니다. 그간 스님과 정혜사 가족 여러분들은 모두 편안하신지요?
사실, 전 오래 전 인도 등 여러 나라의 성지 순례를 다녀온 한국의 사찰들과 스님들, 유럽 등지에서 접했던 우리불교의 흔적들에서 자부심을 느낄 때만 하더라도 해외에서 포교하는 스님들에게 그다지 큰 공감을 느끼지 못했다는 게 솔직한 고백입니다. 그저 뭐 ‘먼 곳까지 와서 불사하며 한국불교를 전파하느라 고생하는구나’ 정도로만 느끼고 왔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정혜사를 다녀온 뒤로는 ‘도대체 내가 자랑스럽게 떠들어 대며 포교한답시고 다니는 것’이 얼마나 부끄럽고 어리석은 것이었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스님은 제쳐 두고서라도 정혜사 법우들이 어찌나 열심인지 지금도 부끄러움에 계면적이고 얼굴이 화끈거리며 땀을 흘리며 모셨습니다.
“전쟁보다 더 큰 격전(?)을 치르고 있다”는 스님의 표현대로 사방이 이교도에 포위되어 철벽같은 수성만도 버거운데 한걸음 더 나아가 포교의 기치를 높이 내 걸고 어린 포교생으로부터 연로하신 노보살들까지 거두고 챙기고 보살피는 스님의 원력과 정성에 감탄을 거듭하게 됩니다. 또 “수행자는 배교

를 면할 정도면 된다”며 가녀린 체구로 정혜사를 진두지휘하는 스님은 진정 만주별판에서 기상을 떨치는 독립군 대장과도 같았습니다.
거기다 두 딸과 함께 어린이·청소년 법회를 도맡아 하시느라 정작 절에 와서도 주지스님 얼굴조차 제대로 볼 겨를이 없다는 법성화 보살님, 우리가 죽더라도 “아-들이 커가고 우리 절을 지키야 된대 이”라는 노보살님들의 원력에 눈시울이 새삼 붉어졌었습니다. 가게나 화원을 운영하시는 법우들께 협박 받, 회유 받 심지어는 원생까지 빼내가며 개종을 강요하는 억압(?)속에서도 꿋꿋이 정혜사를 지키는 모든 분들이 너무나도 존경스러웠습니다.
‘국내 포교도 중요하네 해외는 무슨...’이라는 편협한 저의 근시안적 사고는 비로소 참된 스승을 만나 깨닫게 되었으니 참으로 감사할 따름입니다. 왜 해외포교가 ‘선택’이 아닌 ‘필수’인 까닭을 현지에서 확인할 수 있어서 말입니다.
그렇게 해외포교의 중요성을 현장에서 깨닫게 되니, 준비해야 할 것들이 손에 꼽히게 됐습니다. 먼저 20~40대 ‘허리’가 끊긴 교포불자 층을 복원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10대 새싹불자를 키워내야 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한글교육’이 시급한 이유인 거죠. 바로 이런 이유로 스님은 ‘한글학교’를 어렵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글경전’도 널



캘리포니아에서 단 한국뿐인 한국사찰 정혜사에서 주지 석타스님(왼쪽에서 두번째)과 김광호 법사(왼쪽에서 첫번째)가 함께 기념촬영한 모습.



척박한 미주불교 포교현실에서 왕성한 활동을 벌인 정혜사의 학생수련회 자료사진들이 알람판에 빼곡하다.

리 보급하고, 피아노에 편중된 찬불가 악보도 관현악 중심으로 바뀌어 합니다. 그뿐만이요? 한국불교계의 성원도 중요합니다. 해외포교에 고군분투하는 스님들과 불자들에게 격려의 글을 보내주면 어떨까? 하는 바람도 갖게 됐습니다.
특히 해외포교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합니다. ‘교포포교’에서 벗어나 ‘현지포교’로 포교의 방향도 전환해야 합니다. 그려면 미국 주류사회 속으로 한국불교가 스며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혜사 어린이 법회의 의미는 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목 김광호 합장

이병두와 함께 읽는 **오늘의 세계불교**



달라이 라마 방문과 몽골불교의 고민

‘달라이 라마 방한 추진위원회’를 조직해 여러 해 동안 달라이 라마를 초청하려 노력했지만 우리 정부의 ‘비자’ 발급 거부로 이제까지 그분의 방한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중국 정부의 압력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적은 없지만, 웬만큼 세상 물정을 아는 사람이라면 비자 발급 거부의 배경에 중국 정부가 있음을 잘 알고 있다.
그런데 우리의 마찬가지로 중국의 외교적 압력을 받는 몽골에는 여러 차례 방문하여 법회를 열었고 최근에도 중국 정부가 있음을 잘 알고 있다.
그런데 우리의 마찬가지로 중국의 외교적 압력을 받는 몽골에는 여러 차례 방문하여 법회를 열었고 최근에도 중국 정부가 있음을 잘 알고 있다.

선교 열풍’을 소개하기도 하였다.
8월 27일 AP 통신이 전해온 소식에 따르면, 현재 달라이 라마가 몽골을 방문하여 중진급 스님들에게 직접 법문을 하고 계를 설하는 기간에 걸쳐 캐나다 출신의 선교사 피터 용겐(Peter Yongen)이 대규모 부흥회를 열고 있다. 그런데 이 부흥회장에서 “할레루야!”를 연발하고 “예수님이 오늘 밤 그대에게 강림할 것입니다”며 외치는 사람들은 젊은이들이라는 점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반면에 “정치적 발언과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전제 조건을 달기는 했지만, “철도 노선을 차단하겠다”는 중국 정부의 압력에도 달라이 라마를 초청했던 몽골 불교계는 실망스럽겠지만 법문이 열리지는 않는다는 곳에는 주로 노년층만 참석하였다. 이

몽골은 서기 17세기 이래 티베트의 ‘금강승(金剛乘 Vajrayana)’ 불교를 ‘준(準) 국교’로 삼아 왔다. 그러나 소련의 지원에 힘입어 공산 혁명이 성공하고, 1937년 혁명의 미명 아래 10,000명이 넘는 스님들을 사형시키고 수도인 울란바토르의 간달사(Gandantegcheling) 하나만을 남겨놓고 전국 사찰을 모두 폐쇄시키는 법난(法難)을 일으켰던 슬픈 과거사가 있다.
1990년대, 소련의 공산 정권이 무너지고 동구 위성국가들과 함께 몽골도 진정한 독립을 이룩하고 난 뒤, 이른바 ‘과거사 청산 및 진상 규명’이 이루어졌다. 그 결과 ‘과거의 모든 잘못을 불교와 스님(라마승)들에게 뒤집어씌우는 정치적 의도에서 1937년 법난을 일으켰다’는 사실이 밝혀지게 되었다.
이제 몽골 전역에서 옛 사원과 승단을 복원하고 있다. 몽골인들에게도 최고의 정신적 지도자인 달라이 라마를 여러 차례 초청해 법회를 열어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그러나 몽골 불교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전통적 불교 국가인 몽골에서 불교의 미래가 그리 밝기만 한 것은 아니다
선교의 열정을 품고 세계 각국에서 이곳으로 몰려드는 기독교 선교사들이 넘쳐난다. 심지어 지난 해 5월 25일 AP 통신의 엘리자베트 알지엘(Elizabeth Alzuel)이라는 <몽골, 한국과 같은 길을 가나>라는 기사에서 ‘몽골의 기독교

달라이 라마 방문과 몽골불교의 고민

법회 나온 불자 대부분 노년층 세계서 몰려온 기독교 선교사들 젊은 세대 중심으로 교세 확장

달라이 라마 방문과 몽골불교의 고민

뉴욕 플러싱에 한국 전통사찰 선다

한마음선원 뉴욕지원, 108평 규모 대웅전 착공
뉴욕 한인 최대 밀집지역인 플러싱(Flushing)에 대규모 한국 전통사찰이 세워진다.
한마음선원 뉴욕지원(주지 원공)은 현재 사용 중인 플러싱 사찰 뒤편에 건평 108평 규모의 대웅전 건립을 위한 기초 철근 콘크리트 공사를 최근 끝내고, 본격적인 목조공사에 들어갔다. 4천여㎡ 대지에 들어서는 대웅전은 정면 5칸, 측면 4칸의 팔작지붕 목조건축물로, 350명이 동시에 법회를 볼 수 있게 된다. 또한 지붕 처마의 무게를 받치면서

장식을 겸하는 공포는 단아하고 웅장한 멋을 낼 수 있도록 다포식으로 조성되며, 내부는 17m 천장까지 공포를 다 드러내놓아 품위 있는 한국건축의미를 살리도록 했다.
뉴욕지원은 이를 위해 중요무형문화재 74호 대목장 신우수씨를 도원수로 선정하고, 건축 자재 대부분도 한국에서 수송해오는 등 한국 전통사찰의 건축미를 최대한 보여 줄 계획이다.
오는 2008년 완공예정인 대웅전의 지하에는 전시관, 다실, 도서관, 문서토등 300평 규모의 문화공간이 들어서며 한인사회의 각종 행사와 공연 장소로 개방될 생각이다.



한마음선원 뉴욕지원이 플러싱에 조성중인 대웅전 조감도. 한마음선원이 운영하는 사회봉사단체 ‘자비원’도 이곳으로 옮겨 활발한 대사회봉사 활동을 벌이게 된다. 김철우 기자

가족이 늘었어요 사랑이 늘었어요

오늘 우리집에 새 가족이 온대요.
친부모님의 어려운 사정으로 잠시 우리집에서 함께 살게 된 동생이랍니다.
이제, 엄마도 나눠 갖고, 장난감도 나눠 가져야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더 팍 찬 느낌이예요.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날이 와도 행복한 기억만 가득하도록 만들어 줄래요.

위/탁/부/모/가/ 되/어/ 가/족/의/ 사/랑/을/ 나/눠/ 주/세/요.

▶가정위탁보호 사업이란?

친부모의 실직, 이혼, 질병 등으로 부모와 함께 지낼 수 없는 아이들을 일정기간 위탁가정에서 보살펴 주는 제도입니다.

▶가정위탁보호 사업 지원내용

양육보조금 / 생계비, 의료비, 교육비 등의 지원 / 전세자금 지원 / 사회복지 서비스 지원 / 기타 민간기관 지원

